

정유4사, 정제마진 악화 “울상”

3월 배럴당 마이너스 0.62달러 ... 저유가에 고도화설비 투자로

2009년 들어 정제마진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정유기업들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정제마진은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가격과 운영비용을 뺀 것으로 정유기업의 이익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3월 현재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시장에서 정유기업들의 평균 단순 정제마진은 배럴당 마이너스 0.62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원유 1배럴을 정제해서 판매하면 이익은커녕 배럴당 0.62달러를 손해 본다는 뜻이다.

정제마진은 2009년 들어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하락 폭이 예상 밖으로 커 정유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단순정제마진은 2009년 1월 배럴당 3.7달러에서 2월에는 2.14달러로 무려 42% 떨어졌으며 3월에는 배럴당 마이너스 0.62달러를 기록해 전월대비 2배 이상 하락했다.

국내 정유기업들은 단순정제로는 더 이상 이윤을 올리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저가의 벙커C를 재활용해 휘발유와 경유, 등유를 생산하는 고도화설비를 풀가동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휘발유·경유와 원유(Dubai유)간 스프레드가 크게 줄어들면서 기대한 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유와 두바이유의 가격 차이는 2월 둘째 주부터 3월 셋째 주까지 배럴당 10달러 미만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휘발유도 3월 첫째 주부터 두바이유 대비 10달러 미만의 우세를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3/25>